

## 정부관계자 광산업단지 현장방문



### 광산업육성 정책적 지원 약속

광산업 및 나노기술센터 등 방문 전국 순시에 들어간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4일 광주지역을 찾아 광산업 및 나노기술집적센터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광주 광산업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기술원을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차세대 전략산업인 광주핵심전략산업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를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KIST 광관련 연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센터가 설치될 경우 광주에 설립돼 있는 한국광기술원, ETRI광통신연구센터 등과 연구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KIST의 박막재료연구센터와 광전자재료연구센터 등 광기술 연구센터 등의 유치를 희망했다. 또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 나노환경연구센터 등 KIST의 환경, 공정연구부의 일부 기능도 광주로 이전해 국내 환경연구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광주시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 하겠다”며 “광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하다”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광(光)산업과 문화수도조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광주 이전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광주가 부가가치가 높은 광산업과 문화산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면서 “2004년부터 시작된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산업자원부 신용섭 생활산업국장, 김영민 반도체전기과장 등 광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광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파악 및 업체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 협조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신용섭 국장 일행은 이날 광산업유관기관, 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와 업체방문을 통한 광산업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현장방문은 광통신 수동부품 제조업체인 옵테론(대표 신권식)과 LED 및 광원 전문업체인 LG이노텍(대표 허영호)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1



2

1. 광통신시스템 구축현장을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
2. 광통신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생활산업국장
3. LG이노텍을 방문 업체현황을 듣고 있는 신용섭 생활산업국장 일행



3